

산별노조의 시대, 남부지역노조의 전망

남부지역금속노조

김현미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안

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저는 이 글이 많은 노동자들이 지역노조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노동자 수가 1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률이 더 떨어지면 사회적인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 등 여러 논의들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노조는 1999년 투쟁을 준비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했던 현장조직 사업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고 있는 남부지역노조

남부지역노조는 서울의 남쪽지역의 금속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조입니다. 서울에는 동부지역노조와 남부지역노조가 있습니다. 각각의 노조 역사에는 이제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산별노조 건설 논의와 함께 지역노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속산업연맹에서 제시한 산별건설 과정 중 중소사업장 통합, 지역노조로의 통합은 (하지만 이 논의는 서울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논의를 중단하였지만) 산별건설 과정에

서 중요한 경로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던 남부지역 노조는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에 기여하고 자체 조직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노동자들의 상태와 우리 노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남부지역노조는 1998년 9월에 10주년을 맞이했고, 7대집행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7대 집행부의 과제는 조직확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280여명입니다. 기초 조직으로는 8개분회(한국KDK분회, 신오분회, 영일분회, 광진분회, 영일분회, 아이러스분회, 삼보분회, 미강분회)와 2개지회(금천지회, 구로영등포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 3개 분회가 신규 결성 되었으며, 2개 지회가 조직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회정비에서는 조직비를 장기체납하거나 활동중단을 표명한 조합원 약 40여명을 정리하여 조직활동의 취약성을 일부 보완하기 도 하였습니다.

남부지역 노동자들의 상태

IMF이후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대기업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금속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문

래지역은 1998년 상반기에는 70%정도가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이전에 문래지역은 한바퀴 돌면 취직을 하는 곳이었는데 현재는 취직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잘하면 동결이고 평균 15~20%정도 삭감된 상태이며 체불이 반연되고 있습니다. 1998년 말경 노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회조합원 120여명 중 30명정도가 실업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실업자도 늘어나 노조에서 취업 대책을 세워 현재 실업조합원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악성체불이 많아지면서 노조에서 체불임금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4개 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면 노동부 진정서 정도로는 해결이 안되고 민사재판까지 가야함은 기본이고 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몇 년된 소액체불에 대한 상담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실직을 하면 당장 먹고살기가 막막해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다보니 실업에 대한 공포는 설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회안정망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뿐만아니라 IMF를 빙자한 임금체불,

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을 자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건설로 이어지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노조의 아이리스분회와 삼보분회가 임금과 상여금 체불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처럼 생계형 노조결성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고용문제는 여전하고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노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는 조합원을 자꾸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현재 민주노총 소속노조와 단체들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8년 투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1998년 노조상황

남부지역노조는 1998년 임단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분회 조합원은 임금이 동결되었고, 저희조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개별조합원(지회)들은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해본 체로 임금과 근로조건이 저하되었고, 부도나 체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제가 입법화되자 사용주들은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광진분회와 영일분회가 노조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투쟁을 전개하였고 투쟁

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진분회 조합원은 병역특례병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당해 당장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특례병은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의해 근 3년동안 투쟁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서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노조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고제 입법화로 노조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노조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진분회와 영일분회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으며, 이는 현장에서 조합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사용주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도 기인합니다. 일단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왜 하필이면 지역노조나는 사고방식이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처음 분회를 결성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노조의 형태입니다. 남부지역노조는 분회결성전 철저한 교육을 한 후 분회를 결성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지는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에서 기업별노조는 안된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998년



1998년 한해는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 투쟁은 99년으로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광진분회 앞에서 아침출근투쟁과 연대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한해는 투쟁의 연속이었고, 그 투쟁은 99년으로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광진분회 앞에서 아침출근투쟁과 연대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의 사업

우리노조의 사업은 조직확대사업과 조직강화사업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확대사업은 조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확대사업을 위해 현장사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현장사업반은 현장 조직사업에 결의가 있는 조합원을 묶어 지역의 사업장을 파악하고 논의를 거쳐 결정되면 그 사업장에 들어가 조직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변노동

자들을 조직하고 장기적으로는 분회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활동을 이뤄내는 것과 사람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노조가 지향하는 지역산별을 건설하는데 있어 중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1년 넘게 현장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서 분회가 결성되어 조직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조직확대사업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중소노조들간의 통합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996년 세풍과 KDK가 통합한 이후

지역중소노조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담보상태이며 노조 내부에서는 당분간 통합사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양한 활동의 경험과 의식의 편차, 연맹의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노력과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산별건설 과정에서 중소노조를 크게 묶어 가는 작업은 산별건설의 중요한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지금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중소노조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② 교육선전사업

조직강화사업으로는 교육선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언제 목이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부지역노조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맞서 조합원 교육을 거의 격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조합원을 선거구별로 묶어 교육을 진행하며 내용은 정체와 임단투 현장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간부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6대 집행부에서 강사단 훈련을 통해 강사를 발굴해 냈고, 이들이 조합원교육, 간부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대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예비간부 교육을 통해 3명의 간부를 발굴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부서 활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③ 문화활동

또한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굿페(풀풀, 춤) 노래페, 반주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고 있어 머지않아 홀륭한 문화일꾼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노조는 올해 투쟁을 상반기에는 분회를 중심으로, 즉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개별조합원은 분회투쟁을 결합하고 하반기에는 지역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역투쟁은 그 동안 선전물배포, 거리문화제, 상담활동을 주로 하였으나, 1999년은 지역의 6대요구안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6대요구안은 근로기준법 준수, 상여금지급의 정례화, 휴일확보,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등입니다.

④ 신용협동조합 운영

남부지역노조에서는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문밖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람쥐회에 집단가입하고 있고, 역량이 되면 자체 신협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30명이 가입하고 있고 출자금과 적금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신협에서 자금 지원도 되고 있어 쪼들리는 조합살림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⑤ 체불임금청산본부 활동

위에서 말한 체불임금청산본부는 2월말까지만 운영하고 일상적인 상담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상담이 너무 많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하루 20여건 이상이 오고 있으며 악성체불로 인해 소송중인 전수도 10여건이 됩니다. 노조에서는 이런 상담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추진경과를 계속 체크하면서 중간 상담도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이러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으며, 약 20여명정도가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후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부지역 노조의 과제

남부지역노조는 지역의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지역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개의 기초조직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지역노동자들을 위한 사업, 다른 노조와의 연대 사업 등 요구되는 부분도 점점 높아지면서 광범위한 지역 활동에 필요한 상근역량, 노조운영,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산별시대 지역노조의 역할은 점점 커나갈 것입니다. 중소노조의 전망으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노조는 지역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